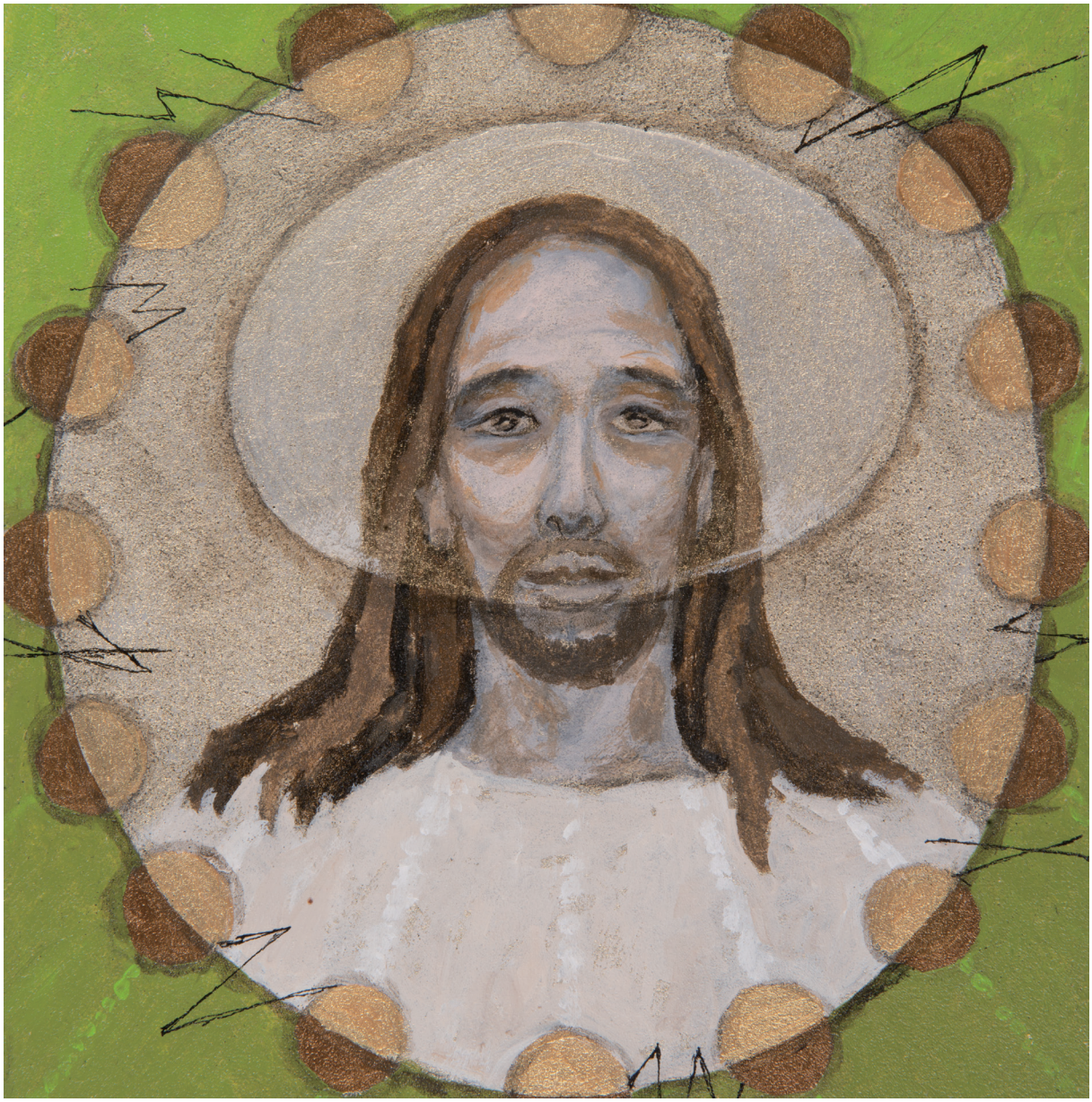
EX VI IMMACULATAE CONCEPTIONI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10주일 2018. 6. 10.(나해) 제2109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르 3,35)

〈 오늘의 전례 6면 〉

주일의
말씀

가치관과 선택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우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함으로써 자신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항상 선과 악처럼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더 나은 것을 택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이 싫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금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덜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에 대한 유혹 혹은 후회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명령'과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뱀의 유혹'이라는 선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달콤한 유혹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가혹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독서는 일시적인 환난을 피하기보다, 그러한 환난을 참고 이겨냄으로써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는, 비이성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친척들조차 미쳤다고 생각했던 삶이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말입니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조언할 수 있지만, 그 삶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고, 그 책임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참된 선택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평화

권병일 요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생명을 살리신 성모님

드망즈 주교님께서 허원을 한 직후 서상돈(아우구스티노) 회장이 남산화원이라고 불리던 자신의 땅 약 1만 평을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상돈 회장에게 땅을 기증받으신 드망즈 주교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모동굴을 지을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주교관을 짓기로 한 땅 옆에 성모동굴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개의 묘지가 있는 작은 인공언덕이었는데 냉담 교우의 땅이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 1912년 3월 10일 주일에 그 땅을 매입하자 냉담교우와 그 가족들은 다시 성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모동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멀어진 자녀들을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 성모당을 지을 부지를 마련하시고 난 뒤 해외에서 많은 이들이 주교관과 신학교를 건립하도록 기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주교좌 계산성당 증축기금은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몇 사람의 찬조는 받을 수 있어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계산성당 증축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웠기에 성모당 건립도 점점 늦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성당이 증축되고 난 뒤, 성모당을 짓기로 성모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당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1916년 9월 29일경 대구에서는 콜레라가 번졌고, 의사들은 콜레라 환자들을 위해 격리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세(Saucet, 蘇世德, 히포리토, 1877~1921) 신부님이 10월 20일 늑막염에 걸려 체온이 37에서 42도까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께서 전라북도 완주군 되재에서 사목방문을 하고 있던 11월 14일, 대구에서 신학생이 와서 소세 신부가 살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전하면서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소속 보육원에 살던 아이들과 수녀님들이 9일 기도를 시작했음을 알렸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만일 소세 신부님을 구해주신다면 계산성당의 확장에 앞서 성모동굴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루르드 성모님에게 서약했습니다. 9일 기도를 마치는 날 소세 신부님의 병세가 호전됐고, 병이 나은 것을 의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모당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모님께서는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소세 신부의 병이 낫게 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1917년 7월 31일 루르드 동굴공사를 위한 토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모당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12월 30일, 몇몇 신자들이 계산성당 증축을 위한 자금을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의 편함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따라 가능기까

정진주 미카엘라 | 대봉성당

내가 세례 받은 지 9년이 지났다. 그동안 언니와 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 시집 장가온 며느리와 사위, 다음 세대인 조카들도 줄줄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와 할머니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저런 기회에 성당 이야기를 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농협에 다니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임지는 울릉도였다. 성당은 도동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성당 마당에서 계단을 끝도 없이 올라가면 꼭대기에 하얀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 아름다운 성당이었다. 본당신부님은 새벽미사를 마치면 부리나케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오징어잡이 배가 갓 부려 놓은 싱싱한 오징어를 사들고 우리 집에 오시곤 했다. 물론 다른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본의 아니게 신부님과 소주 오징어 조찬 모임을 자주 하던 아버지는 그해 성탄에 세례를 받고야 말았다.

아버지는 울릉도에 계셨고 할머니는 대구에서 학교 다니던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 할머니는 유교의 법도를 중요시하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평생 종갓집 맏며느리로 제사와 법도를 지키며 사셨다. 그러니 우리 중 아무도 감히 할머니께 성당 가자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할머니가 세례를 받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돌아가실 때 대세를 드리겠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례받고 대구로 오셔서 삼덕성당에 다니셨다. 그래서 내가 "할무이는 성당 안가실래요?" 하고 불쑥 여쭈었다. 그냥 해 본 소리였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도 이젠 성당에 갈란다. 애비가 성당에 가니 삼종지도(三從之道)에 따라 이제 나도 갈 수 있겠다." 하시며 여자는 어릴 적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법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며느리인 내가 남의 집에 시집와서 시댁의 법도를 바꾸면 죽어서 조상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성당에 가고 싶었지만 맏아들이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본당 수녀님께 정식으로 교리를 배우고 성모 승천 대축일에 마리아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할머니는 세례를 받으신 후 16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96세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다. 평화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재속회 在俗會 〈라〉 institutum seculare 〈영〉 secular institute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사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봉헌 생활회(교회법 제710조 참조)를 말합니다. 회헌에 따라 수도자의 3대 덕목인 정결, 청빈, 순명을 서약합니다. 수도자(수도회원)들이 수도회 안에서 장상이 맡기는 임무(소임)를 행하는 것과 달리, 재속회원들은 각자 고유한 직업이나 직분(사도직)을 가진 상태에서 봉헌 생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재의 수요일 〈라〉 feria Ⅳ cinerum 〈영〉 Ash Wednesday
사순 시기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 미사 때 참회의 상징으로 사제가 재를 축복하고 머리에 얹는 '재의 예식'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 예식에 쓸 재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나뭇가지를 불에 태워 만듭니다.

전구 轉求 〈라〉 intercessio 〈영〉 intercession
「미사 통상문」;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참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간청하고 탄원하는 행위로서,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전대사 全大赦 〈라〉 indulgentia plenaria 〈영〉 plenary indulgence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례력 典禮曆 〈라〉 Calendarium Liturgicum 〈영〉 liturgical calendar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축일들을 수록한 달력을 말합니다.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 달력과 달리 가톨릭 전례력은 대림 제1주일로 시작해 성탄, 사순, 부활, 연중 시기를 거쳐 그리스도 왕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끝납니다.

제사 빵, 제사 음식 〈라〉 panes propositionis 〈영〉 the bread of the Presence
"공물", "제물"이라는 말이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제사 음식"(2581항)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제사 빵"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제의 祭衣 〈라〉 casula, planeta 〈영〉 chasuble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장백의 위에 마지막으로 입는 반(半) 원추형의 옷으로 제의는 예수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하며, 십자가, 비둘기, 물고기, 밀 이삭, 포도 등 예수님과 성령,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여러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창세 3,9–15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	마르 3,20–35.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교구장 동정

6. 3(일) _ 선산본당 견진성사
6. 8(금) _ 사제 성화의 날 미사

총대리 동정

6. 8(금) _ 사제 성화의 날 미사

오늘 ! 어르신들을 위한

'가톨릭 금빛신문' 1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14호
"하느님의 축복 속에 이룹다운 노년을!"
가톨릭 금빛신문
2017년 4월 30일 창간
2018년 6월 10일 연중 제 10주일
축 시
사제성화를 위한 기도
가톨릭 금빛신문 편집인 마정웅 알폰소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사목국 유사종교담당, 250-3123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20분 안팎의 거리는 걸어 다니고, 쓰레기 배출은 줄이겠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6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3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6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16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16(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바오로딸 테클라 성소 모임
일시: 6.17(일) 14: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대상: 하느님을 찾고자하는 미혼 여성
문의: 정막달레나 수녀, (010)6409–4610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때
장소: 원하는 곳
대상: 해방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분
문의: 채세실리아 수녀, (010)9492–0295
http://www.mercedarias.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일시: 6.19(화) 10:00~20(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8.18~19 / 9.1~2
3박 4일: 7.5~8 / 8.2~5
8박 9일: 7.11~19 / 8.7~15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낙태 후 화해 피정
일시: 6.29(금)~7.1(일) 2박 3일
장소: 성빈센트환경마을
참가비: 무료
문의: 착한목자수녀회, (010)9318–1366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 · 고전무용 · 장구, 사범자격과정꽃꽂이, 오카리나, 왕초보영어, 제대꽃꽂이, 다례, 성가반주오르간, 자세교정요가, 수지침, 발성법, 가곡성가, 규방공예, 원어민영어초급반, 프리토킹반 / 신청: 254–6115

31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6.23(토) / 7.21(토) 4주 이상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만 65세 이하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남녀(비신자 포함)
내용: 진료 안내, 도서관련 업무 등
신청: 650–4442
(010)2586–4442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늘 처음처럼… 최고급 식재료만을 고집합니다.
CHINESE RESTAURANT 중국요리 자금성®
대표 :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사도요한)
예약 053)767–6700 수성구 황금동 프드,황천 자동차 옆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53–751–5961
010–3530–7700
위령회 총무 양호진 요셉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굴(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010–4508–4328 010–2002–4328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 종 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 수 윤(소 피 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목)은
(故)박창수(요한) 몬시뇰
선종 9주기 입니다.

행사 | 모임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7(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2시의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매 주일 오후 2시부터 범어대성당에서 아름다운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합니다.
문의: 범어대성당, 744-1394

2018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일시: 6.21(목)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신학대학 대강당
주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미래
문의: 대구 민족화해위원회, 254-3058

교육 | 모집

6월 가나 강좌
일시: 6.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3차 가나 피정
일시: 7.7(토) 14:00~8(일) 15:00
장소: 한티피정의집 / 마감: 7.1(일)
대상: 결혼한지 10년 이하 부부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청년국 21기 청년리더십
일시: 7.6(금)~8(일)
장소: 앞산청소년수련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예비신자 가능)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9580-0083

시편 성가 연수
일시: 6.10(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학술원 정달용 신부 초청 특강
일시: 6.22(금) 17:00 미사
17:45 특강(무료)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4층
주제: 철학적 인간에 대한 특강3
문의: 사무총장, (010)7190-1258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주말
362차 ME주말: 8.3(금) 19:00~5(일)
363차 ME주말: 8.17(금) 19:00~1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6월 참 신앙을 위한 토요 특강
일시: 6.16(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혼인생활이란? / 강사: 최성욱(T.아퀴나스)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18:30~19:30
생활영어(초급): 화 14:30~16:00
생활영어(중급): 목 17:00~18:30
성가반주: 수(오전, 오후) 토(오전)
문의: 476-6211(교대역 3번 출구)

대가대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실습)
음악원(4·6·8주 과정, 1:1 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마감: 6.30(토) / 문의: 660-5555~7
http://conedu.cu.ac.kr

채용 | 안내

상동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 엑셀 업무 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문의: 764-0663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손병수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결혼」리스토리
www.LeeStory.kr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외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산나
010.6571.3385 | 053.586.3220
성서 계대 동문 맞은편 국내-대구 달서 0003호 국제-대구 달서 0002호

개원 17주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저림,진전,요통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Yi Sang Doo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박의현 구심내과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4~5
www.kisaneye.co.kr

LACOSTE
라코스테 대구 동성로점
단체복 문의 우대할인
가톨릭 신자 10% 할인
최한국(프란치스코)
대구 중구 동성로1길 29-36
☎ 053)427-0747 | 010-7292-7895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시스템 냉·난방기
김원(토마스) 010-5623-9001